

[고2 장비2]Ⅲ-1-(1) 개화기 ~ 1945년의 한국 문학

# 산유화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는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김소월, '산유화'

## <핵심 정리>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성격 : 관조적, 민요적, 전통적

제재 : 산에 피는 꽃

주제 : 존재의 근원적 고독

특징 : ① 1연과 4연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서로 대응됨.

② 종결 어미 '-네'를 통해 각운의 효과와 감정의 절제를 보여 줌.

③ 7·5조 3음보와 그 변조로 이루어짐.

④ 고도로 절제된 시어를 구사함.

## 시구 풀이

①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라는 시구는 계절을 열거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순서의 도치와 율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의도적 언어 표현이 나타나 있다.

② **산에 ~ 혼자서 피어 있네.** :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는 표현은 꽃 자체의 고독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 동시에 시적 화자가 느끼는 고독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면 그 꽃은 다른 자연물들(꽃, 새, 나무 등)과 거리를 두고 혼자 떨어져 있으므로 꽃 자체가 고독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면 작품에 나타나는 '꽃'은 시적 화자의 고독한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꽃은 화자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저만치' 떨어져 있다. 화자와 대상 사이의 이러한 거리 자체가 화자의 고독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산에서 우는 작은 새** : '새'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移入)된 대상이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을 좋아하는 '새'도 역시 운명적으로 고독한 존재의 표상이며, 이는 곧 시적 화자 자신의 모습일 뿐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모든 사람의 표상이기도 하다.

한편 '꽃'은 '새'와 함께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인간인 '나'만 '꽃'

의 곁으로 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 때 '새'는 감정 이입이 아닌 '개관적 상관물'이 된다. 그리고 '저만치'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자연어의 단절감을 의미하게 된다.

④ **꽃이 좋아 / 산에서 / 사노라네.** : 시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작은 새'는 자신이 좋아서 고독한 삶을 선택한 것이다. 삶에 있어서 운명적인 고독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 '산유화'의 율격

'산유화'는 압축적이고 간결한 형식 속에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 한 연에 3음보를 두 번 중첩시켜 모두 4연을 이룸으로써 3음보격의 민요적 율격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음보 내에서 음수율이 다소 불규칙하고, 각 행에 음보수를 불규칙하게 배열함으로써 자유시적인 효과 또한 얻어 내고 있다.

## ※ 시상의 전개

탄생 → 고독 → 사멸

1연 : 자연의 순환

2연 : 고독한 자아의 운명적 모습

3연 : 고독을 인정하는 모습

4연 : 자연의 운행과 순환

3음보격 민요조의 운율과 수미쌍관의 구성으로 인간과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근원적인 고독을 형상화하고 있다. 첫째연과 넷째 연은 형태가 거의 같은데, 앞에서는 꽃이 핀다고 하고, 뒤에서는 꽃이 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는 만만치 않은 의미가 들어 있다. 그 실마리는 둘째 연과 셋째 연에 나타난다. 둘째 연에서 꽃이 '저만치 혼자서'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거리가 있음을 뜻하는 동시에 그 꽃이 다른 꽃으로부터도 떨어져서 외로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나'만이 아니라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도 외로운 것이라고 작자는 보고 있다. 셋째 연에서도 새는 꽃을 좋아하지만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외로운 존재이기에 새도 외롭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볼 때 첫째 연과 넷째 연은 세상에 가득한 근원적 고독 속에서 사물들이 나고 죽는 순환의 모습에 해당한다.

## <단원평가 문제>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①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1. 이 시의 형식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운과 각운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쉬운 우리말과 3음보의 민요적 율격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 ③ 시적 허용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압축적인 형식미를 갖는다.
- ④ 시행의 배열과 연의 구조가 규칙적이어서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 ⑤ 1연과 4연이 반복되는 수미상응하는 구조를 지닌다.

2.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모순 형용을 통해 변화와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어려운 관념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 ③ 반어법을 통해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반복과 대칭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 사회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3.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은?

- ①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②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③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 ④ 산에서 / 사노라네
- ⑤ 산에는 꽃 지네 / 꽃이 지네

4. 이 시의 화자가 파악하고 있는 자연의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명과 대립된 순수의 세계
- ② 영원한 질서를 지닌 조화의 세계
- ③ 풍류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 ④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투쟁의 대상
- ⑤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도피처

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구를 찾아 2어절로 쓰시오.

**<보기>**

이 시는 주로 자연 현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달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시적 화자가 개입하여 주관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깝게'라고 해석해야 한다.
- ② 대상에 대한 몰입이 드러난다.
- ③ 꽃이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 줄 수 있음을 말한다.
- ④ 시적 화자와 대상인 자연과의 거리감을 말한다.
- ⑤ 대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심정을 드러낸다.

7. ㉡과 성격이 비슷한 사물을 <보기> 시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두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날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리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을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을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작자 미상, [청산별곡]

8. 다음 중, 이 시에서 시적 화자와 '산'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와 유사한 것은?

- ① 내 마음은 낙엽이요, /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 ② 향 맑은 옥돌에 붙어 달아 /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 ③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 막을날 내 외로운 훈(魂)을 건지기 위하여
- ④ 뭐라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 ⑤ 손에 달을 닮은 봄 하늘에 / 구름은 무심히도 / 북(北)으로 흘러가고

9. 이 시의 구조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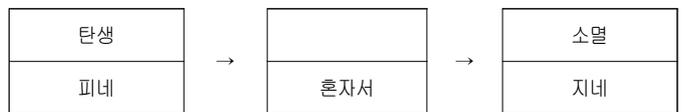
- ① 반복과 대칭                      ② 점층적 심화                      ③ 대등과 나열
- ④ 원근적 배치                      ⑤ 연쇄적 연결

10. 이 시를 서두에 인용하여 수필을 쓸 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그 운명적 고독
- ② 시련을 통한 정신적인 성숙
- ③ 인간과 자연의 정신적인 고통
- ④ 인간과 자연, 갈등에서 화해로
- ⑤ 자연, 어머니와 같은 넉넉한 품

11. 이 시의 사상 전개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성장                                      ② 분열                                      ③ 고독



- ④ 자유                                      ⑤ 초월

12. 존재의 근원적 고통을 양적 거리로 표현한 시어는?

13. 위 시에 드러난 태도로 옳은 것은?

- ① 관조적                                      ② 의지적                                      ③ 풍류적
- ④ 향락적                                      ⑤ 저항적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③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박목월, 나무

④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 바람에 불려 나뭇잎 날릴 때, 불안스러이 / 이리저리 가로수 길을 헤멜 것입니다.

-릴케, 가을 날

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 오하려 **꽃**은 빨갭게 피지 않는가. /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이육사, 꽃

## <정답 및 해설>

- 1) ④ (해) 3음보의 율격을 기본으로 하되, 시상 전개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단조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 2) ④ (해) '꽃이 피네'와 '꽃이 지네'에서 반복과 대칭이 두드러진다.
- 3) ② (해) 존재의 불변하는 절망감, 고독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4) ② (해) 이 시에서 자연은 끊임없이 꽃이 피고 지는, 즉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순환적으로 영속되는 곳이다.
- 5) 저만치 혼자서 (해) '저만치 혼자서'에는 시적 화자의 주관적 감정(외로움)이 표출된 부분이다.
- 6) ④ (해)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말이다.
- 7) 새 (해) ㉠에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보기>의 '새' 역시 화자의 슬픈 마음을 이입한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 8) ④ (해) 화자와 산 사이에는 단절감과 거리감이 존재한다.
- 9) ① (해) 1·2연과 3·4연은 서로 대칭적이다.
- 10) ① (해) 이 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고독하고 비애를 느끼는 인간이다.
- 11) ③ (해) 이 시에서 '꽃'은 화자자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는 것은 화자의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 12) 저만치
- 13) ① (해) 시적 화자는 영원하고 무한한 자연과, 그 자연 속에 포용된 꽃과 새를 통해서 소외와 고독감을 담당한 어조로 표현하면서,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는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14) ③ (해)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는 표현은 꽃 자체의 고독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 동시에 시적 화자가 느끼는 고독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선,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면 그 꽃은 다른 자연물들(꽃, 새, 나무 등)과 거리를 두고 혼자 떨어져 있으므로 꽃 자체가 고독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면 작품에 나타나는 '꽃'은 시적 화자의 고독한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꽃은 화자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저만치' 떨어져 있다. 화자와 대상 사이의 이러한 거리 자체가 화자의 고독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 15) ④ (해) 첫째 연과 넷째 연은 세상에 가득한 근원적 고독 속에서 사물들이 나고 죽는 순환의 모습에 해당한다.
- 16) ② (해) 혼자서 피어있는 산유화는 화자의 고독한 정서를 드러낸다.
- 17) ⑤ (해) 이 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하지 않았다.
- 18) ⑤ (해) '환한 목숨이여'에서 알 수 있듯이, <보기>의 꽃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19) ③ (해) 산'은 신성한 장소와는 무관하다.
- 20) ⑤ (해)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는 표현은 꽃 자체의 고독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 동시에 시적 화자가 느끼는 고독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 시에서 꽃은 '존재의 고독'을 함축하고 있다. ⑤의 '꽃'은 시련을 이겨내고 소생하는 존재이다. (오) ① 인생의 적막함과 고달픔 ② 인간 존재의 근

원적 고독 ③ 목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삶의 모습 ④ 신의 섭리와 인간의 근원적 고독에 대한 탐구